

2000년대 우암(尤庵) 연구의 방향 모색

곽 신 한*

I. 허물과 비난을 의식하고 산 사람 - 尤庵

사람은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면하지 못한다. 안연의 “不遷怒 不貳過”가 차라리 목표가 될 것이지 불로(不怒)나 무과(無過)는 기대할 수 없다. 기질의 치우침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중용』은 “치곡(致曲)”을 말한다. 우암은 그의 기질 상 남이 꺼리는 바가 있음을,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업이 남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할 수 없는 일”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생 남들의 비난을 의식하고 살았고 그것이 사후에도 이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난이 어떤 동기와 맥락에서 나왔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II. 갈등하는 인간 - 정직과 성실의 영웅

송자(宋子)라는 칭호가 이미 암시하듯 그는 성자(聖者)가 되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 대각선지점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쪽에서 높이면 다른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폄하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암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 기술할 때이지 새로운 찬사를 쓸 때가 아니다. 신화(神話)화 성인(聖人)화의 작업은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이미 새로운 개념의 영웅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그의 약점 갈등 같은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

* 숭실대 철학과교수

동시에 그의 정직과 성실성을 부각해야 한다.

우암도 다른 학자들처럼 성인의 길과 왕도를 행하는 길에 때로는 갈등을 겪었다. 양자의 일치를 궁극적으로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선비로서 과거를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기에 우암은 과거는 보았으나 조정보다는 산림을 택하는, 이른바 산당(山黨)으로 살았다. 그는 학문의 길 수양을 통한 성인의 길을 지향했다. 그러나 사림의 중망(衆望)이 그에게 모임으로 인하여 자연스레 여론의 향배(向背)를 주도하게 되었고, 세도(世道)를 자임하기에 이르렀으며, 훗날 노회(老獪)한 정치인이라는 지칭이 나오게 되었다.

또 다른 갈등도 있었다. 김익훈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그는 엄벌을 주장하는 소장파와 달리 유희(宥和)적 조치를 취했는데, 우암의 눈에는 김익훈의 얼굴 위에 스승 사계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소장파의 눈에는 원로집단의 비호를 받는 김익훈의 과실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른바 사제간의 문제(懷尼)도 후학들에게는 당혹스런 사안이다.

III. 유현(儒賢)으로서의 우암, 노론의 영수(領袖)로서의 우암

송시열을 정치, 당쟁, 북벌론, 예송 등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지엽이다. 그것이 직간접 이해관계와 결부된 세인의 주요관심거리일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한 바르고 충분한 이해의 길은 아니다. 망국의 원인, 당쟁의 원인을 그에게서 찾는 것 등은 맹자가 말한 “지언(知言)”의 대상이다. 오늘의 현실이나 그의 사후에 나타난 국가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의 원인을 그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은, 그래서 선언적 구호의 형식을 지니는 평가도 경계하여야 한다.

그는 유학자이다. 수기치인(修己治人) 치평(治平)을 겨냥하는 사람이다. 수기의 과정과 내용, 치평의 내용과 원리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는 주자학자이다. 그래서 이기(理氣) 천리인욕(理欲)의 개념을 주축으로 세계와 사회를 설명한다. 그가 주자학의 체계 안에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의 학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좀 더 학자로서의 우암,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의 성리학적 토대에 관한 이해가 주자학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의 문헌 편찬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가 기초를 놓은 『주자대전차의』, 『주자언론동이고』나 『어류소분』, 『이정서분류』와 같은 저술사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오늘의 관점에서 그를 비평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는 그가 살았던 유학과 주자학적 세계와 가치관에서 그를 판단해야 한다.

IV. 상황 속의 존재- 상황을 넘어서는 가치

인간은 상황 속의 존재이다. 어느 누구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를 17세기 상황에서 이해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의 행위도 그 시대에 대한 처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의 시대는 왜(倭)·호(胡)란의 전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통치 질서 재편의 와중이었다. 집단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당쟁도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시대는 피사(諛辭)·음(淫)사·둔(遁)사·사(邪)사가 횡류하고 있었다. 혼란의 시대·전환기를 이해하는 데는 그 나름의 타당성과 해당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그의 사업과 행적은 그의 논적(論敵) 정적(政敵)을 염두에 두고 논해야 한다. 그래야 그의 위상 성격이 비교적 선명해진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언행에 억양(抑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동시대의 다른, 특히 대립적 위치에 있는 학자, 정치인, 정책, 이론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의 예설의 지향점을 대비하고(사대부중심 보편윤리 /왕가중심 특수윤리), 경학적 기반을 대비하고(宋學, 新學/漢唐), 古學), 가치평가의 준거(주자학적 합리주의/한당대의 災異론적 판단), 이기심성설에 대한 이해(주자학적 정합성 엄밀성 중시/개방적 이해), 후학들의 이론과 성향(인물성동이론, 위정척사파/??), 당시의 위치(집권의 책임적 위치나 재야의 비판적 위치나)등을 고려하여 대비적 논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V. 변통(變通)의 사업

사가(史家)들은 우암은 학문적 업적보다는 사업이 많았다고 평하기도 한다. 『주역』에 사업의 의미를 “化而裁之 推而行之” ‘舉措於民’¹⁾라 했다. 즉 음양이 전화(轉化)하는 이치에 근거하여 법칙을 제정하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이를 모든 사물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을 통이라 하는데 이 변통(變通)을 들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사업이다. 변통은 그 목적이 이익의 극대화이다. 이이가 “진실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듯이 우암 또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변통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변통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고집스런 이미지 또는 모화·사대주의라는 왜곡된 이미지와 달리 그는 변통론자이다. 호포제의 실시, 양민의 노비화억제, 반가(班家)부녀자의 개가허용, 환향녀(還鄉女)문제의 처리 등 변통의 원리에 입각한 그의 사업, 개혁사상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1) 『繫辭 上』 12장

‘尤庵 宋時烈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평

김 용 흠*

1. 현대 역사학이 당면한 과제의 하나는 근대와 전근대의 연속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그것은 오늘날 계승·발전시켜야 할 바람직한 역사적 전통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日帝 강점기에 植民史學에 대항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實學思想을 우리가 계승해야 할 바람직한 역사적 전통으로 간주하였고, 해방 이후 많은 학자들이 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조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학계 일각에서 실학사상이 갖는 의미를 폄하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그것은 실학 연구에서 드러난 일부의 잘못된 연구 경향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학사상 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한다면 결국은 전근대와 근대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청산해야 할 부정적 유산을 계승해야 할 역사적 전통으로 착각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움직임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조선후기를 지배한 정치사상은 朱子學이었다. 주자학은 다른 중세사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規模의 방대함과 體系의 정합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兩亂 이후 조선의 官人·儒者들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자학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現實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實學은 이와 같이 당시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에 찬 모색의 소산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進歩 改革 路線으로 표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적 노선에 대해서 그것을 朱子學에 특유한 ‘關異端’의 차원에서 비판하고 배척하려고 한 중심에 宋時烈이 서 있었다. 송시열은 주자학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朱

* 연세대 역사학교수

子 道統主義를 내세웠다. 그는 주자의 ‘한 마디 한 구절’도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12세기 南宋에서 나온 주자학이 17세기 朝鮮에서 ‘글자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송시열과 그를 계승한 일군의 老論 正統論者들은 진보 개혁노선에서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실상을 발표자가 말한 대로 ‘당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 시대에 즉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송시열 연구는 말 그대로 일천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송시열 사상의 전개 양상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정치론의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土禍’와 ‘黨爭’은 朱子學 政治論과 현실 정치와의 모순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송시열의 關異端論에 입각한 朱子 道統主義는 관인·유자들의 분열을 끊임없이 부채질하면서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켰는데, 그 구체적 실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다. 조선후기의 정치에서 ‘타협’의 전통이 확립되지 못한 것도 상당 부분 여기서 연원한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英·正祖代의 蕩平論·蕩平策은 바로 이러한 편협한 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타협의 정치 이론이었다. 그런데 송시열을 계승한 주자 도통주의자들은 탕평론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서 결국 노론 벌벌정치를 낳았다. 19세기 勢道政治가 송시열의 정치 이념인 朱子學 義理論을 내세우면서 소수 勢道 閥閥 家門이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위기로 몰아간 실상 역시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송시열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를 계승한 주자 도통주의자들의 사상과 행적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유학 사상은 본래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정치사상이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으로서 긍정적인 측면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송시열과 그를 계승한 주자 도통주의자들은 그중에서 아주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유학 사상을 오늘날 되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尤庵 사상과 17세기 한국사상사연구의 과제

이 봉 규*

I. 定本の 편찬

우암 사상 연구를 위해 선행해야 할 예비 작업은 무엇보다 관련 1차 사료들을 모두 모아 재정리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퇴계학연구원에서는 『퇴계집』을,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여유당전서』를 정본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암이 편찬한 『二程書分類』의 표점본이 서대원 박사에 의해 최근 중국에서 간행되어 중국 연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朱子全書』와 같이 우암이 남긴 저작 모두를 수집하여 정본으로 편찬한다면, 17세기 한국사상사의 한 진면목을 해외에 인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구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동아시아 사상사의 지평에서 재조명하는 일

17세기 한국사상사의 연구는 대체로 지금까지 일국적 시각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틀에 입각하여 진행해왔다. 근대를 지향하는 사유로서 <실학>을 구성하면서 그와 대비된 체제온존의 보수적 사유체계로 17세기 조선성리학을 규정하던, 아니면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류 사상으로 재조명하던, 대체로 모두 조선 내부의 일국적 시각 속에서 논의되어왔다. 이제 동아시아 사상사와 연관해서 17세기 한국사상사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암 사상 역시 동아시아 사상사의 지평 속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인하대 철학과교수

다만, 그 경우 사상을 배태하는 동아시아 각 지역의 정치적 환경을 비롯한 제 요소의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사상의 담론을 상대화한다는 것이 자칫 타자의 문제의식으로 한국사상을 비추어 보는 편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실학과 성리학의 대비적 연구들에서 <실학>개념의 토대로 삼았던 <근대>지향의 그 <근대>가 유럽사에서 전개된 근대 이행의 문제의식을 투영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실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내재적 발전>의 문법을 구성하는 노력이 결국 우리의 현재에 근거한 문제의식도 아닌 모호한 유럽사적 편향으로 착색된 一國之史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점도 있는 것으로 반성되기 때문이다.

우암이 태어나기 전인 1603년 마테오리치는 북경에 들어와 1610년 그곳에서 사망하기까지 한문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 서양철학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스토아 사상을 이용하여 유학의 사유체계를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을 이용하여 중국유학자들을 교화시켰을 뿐 아니라, 서광계에게 『幾何原本』의 일부를 구술하여 번역케 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세계지도를 수정 간행하면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우암이 人心과 人欲의 개념구분을 통해 주자의 초년 사상과 만년 사상의 차이를 밝히고, 동춘당이 현종에게 인심이 인욕으로 전락하는 것은 대체로 싫어하는 심리보다는 좋아하는 심리에 빠짐으로서 발생한다고 충고할 때, 閔若璩(1636~1704)는 바로 뒤에서 주자가 유교의 초역사적 心法으로 재해석한 「大禹謨」의 구절이 『論語』와 『荀子』 등 여러 문헌에서 짜깁기한 僞作임을 밝히고 있었다. 17-8세기 조선에서 기호와 영남을 막론하고 理氣에서 心體에 걸쳐 그리고 行禮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의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그야말로 왕성히 省察하고 體認하고 있을 때, 江南의 주요 도시에서는 정부와 대상인들의 지원 속에 유학자들이 공동으로 漢學的 研究를 축적하여 『通志堂經解』(1680) 『經義考』(1701) 등 叢書와 目錄 뿐 아니라 『古文尙書疏證』(1693/1745) 등 다양한 한학적 연구서들이 그리고 그들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古今圖書集成』(1725)과 『四庫全書』(1788) 등 총체적 성취들을 The아내고 있었다. 그 한학적 연구는 19세기 王先謙이 편찬을 주도한 『皇清經解』(1829)와 『皇清經解續』(1888)에까지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十三經을 재검토할 때 1차적 저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완원이 완성한 『十三經注疏』 교감본(1805)임이 말해주듯이, 200여년에 걸친 한학적 연구는 지나온 시대 전체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해외의 지적 상황, 말하자면, 성리학을 대체하는 조류가 새롭게 형성되어갈 뿐 아니라, 이전의 시대 학문 전체에 대한 총체적 정리가 진행되는 상황, 결국은 근대 학문체계로 대체되어가는 상황을 17-8세기 한국사상사를 연구할 때, 좁게는 우암의 사상을 연구할 때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節約通編』, 『二程書分類』, 『朱子大全節疑疏』, 『心經釋疑』 등등 정주학의 체계를 정리하고 성리학의 이론 각 부문에 대하여 通論을 세우고 體認-踐履에 심혈을 기울이는 우암의 사상적 작업을 어떻게 동아시아 사상사의 지평에서 상대화하여 재조명할 것인가?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유럽적 근대가 아닌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의 또는 좀더 넓혀서 아시아 諸國의 문제의식과 환경들이다. 이들 당시 동아시아의 시선들에 조선의 문제의식과 환경을 드러내 놓고 각각의 시선들을 교차시켜 <동아시아의 시선>을 구성해내야 할 것이다. 그 구성 위에서 17세기 한국사상사와 우암의 고투를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상사를 상대화한다는 것이 중국 내지는 일본의 역사적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사상사를 해석하는 또 다른 편향으로 빠져들어서는 곤란하다. 가령, 정치적 환경에서 보면, 永樂帝가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명·청 시기 내내 유교 지식인들은 국정의 이념과 방향을 창출하는 정치적 주체로부터 정치적 경계와 정치적 통제의 대상으로 역사적 위상이 변해간다. 십여만에 이르는 환관이 君子儒가 수행해야 할 정치를 주도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통제 속에 대부분의 儒者들은 經學과 經世論에 대한 漢學的 테크노크라트로 재정립되고, 이념으로서의 성리학은 무기력해지는 상황, 이것은 17-8세기 중국에서 발견되는 사상사의 환경이다. 반면, 山林이 국정에 참여하고, 書院이 여론 형성의 진원지가 되어, 성리학 이념의 실현이 곧 개인의 삶과 국가 정치 모두의 정체성으로 과잉 인식되던 것이 같은 시기 조선의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적 상황의 차이는 문제의식과 학문방식에서의 차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대성의 문제, 곧 지금 우리의 시선에 관한 문제이다. 지나간 시대 또는 그 사상에 대한 탐구란 결국 우리 자신의 시대를 구성하기 위한 탐구이다. 무엇을 읽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문법이 명확하지 않는 한 17세기 사상사에 대한 탐구는 공허해질 뿐이다. 우암의 고투가 현대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고 묻는 것은 곧 우리가 현대에 무엇을 구성하려는 것인가 하는 질문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가령 <근대> 이행의 경로에 대한 해명, 그리고 <근대> 체제로의 변환이라는 19세기 내지 20세기 전반기의 문제의식에서 보면, 17세기 한국 성리학의 분투는 사라지는 시대의 잊혀질 문법에 충실하면서 다가오는 시대의 닦쳐올 문법에 대하여 예비하지 못한, 또는 예비를 지연시킨 곤혹의 한 장면이 된다. 이제 21세기 초두에서 우리는 17세기 한국사상사를 대면하면서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가? <근대>의 폭력적 역사과정에 대하여, 합리성을 가장한 계몽의 강제와 利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지금, 그러한 재검토가 17세기 한국사상사의 분투를 인류의 어떤 성취로 나아가는 적극적 요소로 과연

재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가? 우리 학계에는 사실 이에 대하여 별 문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곧 유교의 현대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동아시아의 질서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17세기 유교 사회를 어떻게 재조명해야 할 지 그 문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암 송시열과 봉당정치

이 석 린*

지금까지 우암 송시열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와 유학·사상사적 측면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고 또 그에 대한 연구 성과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선생의 정치사적 측면 특히 봉당사적 측면에서 차후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표자도 요지문의 말미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우암 선생이 오랫동안 정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봉당의 문제를 일인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선망국론의 인식하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에 따른 우암의 평가 또한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봉당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조선왕조의 붕괴는 20세기 초에 있었고 봉당정치는 사실상 19세기에 접어들며 소멸되고 곧바로 세도정치라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 16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7~18세기에 진행되었던 봉당정치가 어떻게 조선왕조 붕괴와 연결되는지에 대해 일인학자들의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일련의 학자들의 인식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본 토론자의 견해로는 봉당정치를 조선왕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정치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단순한 파당 정치나 정쟁의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 사대부들의 정치 형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진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 요소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봉당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17세기 후반 봉당정치의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우암에 대한 인식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충북대 사학과교수

다음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암의 정치활동에서 나타난 붕당의 대립에는 주자학적 이론과 소신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붕당의 대립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그 바탕에 주자학을 해석하는 차이 내지는 그 인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초 붕당의 탄생되는 배경에 율곡과 퇴계의 철학적·유학적 견해 차이에서 대다수 조선 사대부들이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이것이 선조 초에 이르러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동·서 분당이 야기 되었다고 보았을 때 여기엔 분명 학문적 대립이 결부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좋은 사례가 효종 死後 야기되었던 예송문제(일명 복제문제)가 그것이고 이를 둘러싸고 우암의 정치적 굴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우암이 일생을 접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던 기사환국도 그 표면에는 서인·노론과 남인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나타나 있지만, 장희빈 소생을 세자로 책봉 했을 때 훗날 야기될지 모르는 연산군의 전례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암의 우려에서 야기된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재된 인물 중 하나인 우암 송시열은 네 분의 왕을 모시고 조선후기 정국을 주도했던 불세출의 정치가요 학자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했던 인물에 틀림이 없다. 비록 시대가 흐르면서 그에 대한 공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 조선시대사에서 주목되는 인물로 이제 그의 탄생 400주년을 앞두고 그 동안 이루어졌던 우암 연구를 정리해 보고 차후의 연구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토론자는 무지한 소치로 구체적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고 다만 현재의 시각과 잣대로 17세기 역사를 가늠하지 말고 또한 그의 정치 행적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붕당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바람에 그 붕당정치가 단순한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철학적 이해와 결부되어 있는 즉 학문적 정쟁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향후 우암 연구의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암 송시열에 대한 종합적 평가

지 두 환*

우암에 대한 종합적 평가, 그의 역사적 공과, 사상의 특징과 한계, 우암이 역사에 남긴 긍정적 요소.

우암 송시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되었던 것은 조선망국론 유교망국론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교망국론은 당쟁론으로 비화되었고 당쟁론의 핵심은 예송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에 대한 평가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봉건국가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문화선진국가인 중화국가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 중국에 300년 뒤떨어진 나라로 보는가, 대등한 나라로 보는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러한 조선사회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유교 성리학을 어떻게 보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우암 송시열을 어떻게 평가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교 성리학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연구로 실학을 들 수 있습니다. 실학 연구는 성리학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실학 연구에 대한 검토가 유교 성리학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송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송은 당쟁의 핵심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가 성리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국민대 역사학과교수

이처럼 우암 송시열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우암 연구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후기 긍정론 부정론은 조선후기 양란이후 사회를 피폐한 사회로 보는가, 중계무역 면화 왕국 명산지 농업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보는가, 영·정조 문예 부흥기를 부흥기로 보는가 아닌가, 또 이를 이룬 사상을 실학사상으로 보는가 성리학으로 보는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후기사회와 성리학을 보는 시각을 정반대로 만든 것이 식민지사관이고 조선망국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망국론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전체 역사 흐름을 새롭게 정리하고 조선후기 사회를 재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위에서 우암 송시열을 재평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암 송시열에 대한 재평가는 전체 역사 흐름을 새롭게 정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한국사상사 특히 유교사상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잘못 정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을 주자맹신자로 주자학자로 치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자성리학은 조선전기에 성종대까지 역할을 다하고 16세기 이후에는 중국에서는 심학을 기반으로 하는 양명학이, 조선에서는 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성리학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학에 입각한 조선성리학을 완성한 사상가가 퇴계 율곡이고 이에 대한 논쟁이 심성논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성리학을 충실하게 계승한 사상가가 우암 송시열이라서 우암은 주자성리학자가 아니라 조선성리학자로 다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우암 뿐 만 아니라 율곡이후 조선후기 성리학자들은 주자학자가 아니라 조선성리학자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선사회나 성리학 재조명 없이 우암만을 재조명한다면 다시 19세기에 말폐로 형성되었던 당파 집안만을 내세우는 당파성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